

### 語彙, 人生

### 글쓰기 공부

글쓰기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은 글쓰기 공부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령 '매주 토요일은 글쓰기 공부하는 날', '퇴근하고 매일 1시간 글쓰기' 같은 계획을 세우면 거의 다 실패할 것이다. 글쓰기는 목적이 아닌 도구이며, 글쓰기 공부보다 중요한 사건들은 늘 예고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의 일과를 글쓰기 연습 도구로 겹쳐서 활용하는 게 좋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거대한 글쓰기 교재요, 그 삶의 축소판인 직장은 핵심만 '간추린' 교재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를 탐독하라.

새해를 맞아 글쓰기 공부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작은 종이 국어사전을 하나 마련하기 바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에는 대개 사전 기능이 포함돼 있어 언제든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종이 국어사전을 비치해두기를 권한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휴대전화로 찾아보는 일이 얼핏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종이 사전을 찾아 밑줄 치며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효과적이다. 당장 편하다고 하여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사전을 구했다면 책꽂이에 꽂아두면 안 되고 반드시 책상 위에 놓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눈에도 잘 띄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손때가 묻을수록 당신의 어휘 실력과 문장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로 금태환 본위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로 대체되고 케인즈주의적 자본이동 통제는 신자유주의적 인 자본이동 자유화로 바뀌었으며 IMF와 IBRD 같은 브레턴우즈 기관의 기능도 국제수지 적자 보전과 전후 재건에서 구조개혁으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지구적 자본주의의 질서, 특히 축적의 방식이 완전히 변모했다는 점이다.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자,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카지노 자본주의' 및 '경제전쟁'의 양상을 띤 금융과 생산의 지구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pp. 63-67.



### artist 화가 마크 로스코

"작품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이 사실적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들, 즉 비극, 황홀경, 운명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 멜 구딩(지음), 정무정(옮김), <<추상미술>>, 열화당, 2003, p. 72.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스며들듯이 마무리해 커다란 직사각형들이 공간 속에 떠도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로스코의 그림에서 그러한 공간은 명상적인 관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 엘릭젠더 스티지스(책임편집), 권영진(옮김), <<주제로 보는 영화의 세계>>, 마로니에북스, 2007, p. 381.

"어떤 화가들은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적게 할수록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은 호소력이 있어요. 관객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으니까요."

-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 바티스투타의 눈물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서독 대표팀은 3년 간 40연승을 달리던 헝가리를 결승에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베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승리는 히틀러가 남긴 패전의 상처에 신음하던 독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암담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경비를 선수들이 모두 부담했다. 2001년 말 아르헨티나가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장 바티스투타 선수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이 결정되자 그라운드에서 평평 울었다.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승리를 통해 용기를 주겠노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에는 "경계" 가 없다

사랑과 증오 모두 "번짐" 또는 "스며들" 의 양상이다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인간과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기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블레이드러너>에서 전투용 사이보그 로이 배티는 수명(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분투하지만 끝내 좌절한다.

2012.01.05.

"나는 당신네 인간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것들을 보아 왔다. 오리온좌의 언저리에서 작렬하는 전투선들의 포염. 탄호이저 성운 근처 암흑 속에서 번득이던 광선들도 보았다. 그러한 모든 순간들은 빛속의 눈물처럼 시간속에서 잊혀가겠지. 죽을 시간이 됐군."